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보 도 자 료	
배 포 일	2026. 7. 16.	기관명	오봉유치원
홍보담당관 (공보담당)	전화) 278-1791~5	기관장	정현희
	팩스) 278-1789	담 당 자	교사 정은정(785-5061)
붙 임	사진(○), 영상(×)		

오봉유치원, 물놀이 주간 실시

초등학교 운동장이 워터파크로! 놀이로 배우는 과학탐구 물놀이 주간 운영

오봉유치원(원장 정현희)은 지난 7월 13일(월)부터 16일(목)까지 4일간 전 유아를 대상으로 ‘여름맞이 물놀이 주간’을 운영했다. 이번 물놀이 주간은 유아들이 물을 이용한 다양한 놀이를 통해 오감으로 계절을 느끼고, 대·소근육 등 신체 발달과 안전 의식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물놀이 주간 동안 오봉초등학교의 넓은 운동장은 아이들을 위한 환상적인 워터파크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대형 풀장과 다채로운 놀이 구역이 어우러져 시중의 대형 물놀이 시설이 부럽지 않을 만큼 알찬 규모로 꾸며져 눈길을 끌었다.

특히 과학적 호기심과 탐구력을 신장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종이배와 볼풀공, 클립 등 다양한 물건을 활용한 ‘물에 뜨고 가라앉기 과학 실험’ ▲긴 투명 비닐로 ‘물지렁이’를 만들어 관찰하는 등 놀이 속에서 과학적 원리를 자연스럽게 체득 ▲물놀이가 끝난 후 젖은 티셔츠를 햇볕에 직접 말려두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옷을 관찰하며 탐구 능력을 높였다.

오봉유치원은 안전한 놀이 진행을 위해 사전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 수칙 지도를 철저히 하고 준비운동을 실시했다. 또한, 놀이 구역 곳곳에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현관 입구에 수건을 깔아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16일(목)에는 5세 해누리반 유아들이 오봉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함께 하는 이음교육으로 물총놀이를 진행하며, 초등학교와의 친밀함과 유대감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물놀이에 참여한 5세 유아는 “학교 운동장이 커다란 물놀이터로 변해서 정말 신났다.”며 “내가 직접 고른 물건이 물에 뜨는 걸 보고, 햇볕에 젖은 옷이 마르는 걸 관찰하는 것도 신기했다.”고 해맑게 웃으며 소감을 전했다.

오봉유치원 관계자는 “유아들이 안전 수칙을 스스로 실천하며 친구들과 함께 시원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단순한 놀이를 넘어 아이들이 오감으로 세상을 탐구하고 과학적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중심의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사진 설명]

① 물총놀이를 하는 모습



② 물지렁이 놀이를 하는 모습



③ 오봉초등학교 1학년과 이음교육(물놀이)을 하는 모습





보도자료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봉유치원 교사 정은정 (☎055-785-5061)